

번호: PO-EP-022					
제 목	다양한 진단기준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률 비교 : 일개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omparison of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based on various diagnostic criteria in a Rural Adult Population : CMS Study				
저 자 및 소 속	박용문1), 권혁상2), 임선영1), 임동준2), 윤건호2), 이원철1), 손호영2), 노재홍3), 안명숙3), 김동석3)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3) 충주시 보건소 Yong Moon Park 1), Hyuk Sang Kwon 2), Sun Young Lim 1), Dong Jun Lim 2), Kun Ho Yoon 2), Won Chul Lee 1), Ho Young Son 2), Jae Hong No 3), Myung Sook Ahn 3), Dong Suk Kim 3)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3) Chungjoo Public Health Center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 스텐
<p><b>목적:</b> 2005년 IDF(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진단기준을 발표했다. 다양한 진단기준은 대사증후군 발병기전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NCEP-ATPIII 기준, Modified(아시아-태평양 비만기준) NCEP-ATPIII 기준 및 IDF 진단기준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비교하고,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인슐린저항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p> <p><b>방법:</b>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충주시 읍면 지역의 40세 이상 성인, 총 8,395명 (남자:3436명, 여자:49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를 통해 대사증후군 진단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획득하였다. HOMA-IR 계산식을 통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인슐린저항성이 있다고 간주하였고, 각 진단기준별로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를 ROC분석에서의 AUC(area under curve)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p> <p><b>결과:</b>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NCEP-ATPIII 기준에서 전체 23.7% (95%CI 22.2-25.7), 남자 18.3%(95%CI 16.2-20.5), 여자 27.5%(95%CI 25.3-29.6)였다. Modified NCEP-ATP III 기준에서는 전체 35.0%(95%CI 33.1-36.8), 남자 29.3%(95%CI 16.2-20.5), 여자 39.0%(95%CI 36.4-41.5)였고, IDF 진단기준에 의한 유병률은 전체 30.9%(95%CI 29.2-32.7), 남자 21.8%(95%CI 19.4-24.1), 여자 37.5%(95%CI 34.9-40.0)였다. 인슐린 저항성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기준 모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 분석에 의한 각 진단기준의 AUC는 남자의 경우 수정된 NCEP-APT III기준이, 여자의 경우 IDF 진단기준이 각각 0.65로 다른 기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p><b>결론:</b>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Modified NCEP-ATP III기준에서 가장 높았고 IDF기준, Modified NCEP-ATP III 기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진단적 정확도는 남자에서는 Modified NCEP-ATP III기준이, 여자에서는 IDF기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확립을 위해 허리둘레 기준 등 각 진단항목별로 대사증후군의 결과지표인 심혈관계질환 및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p>					